



◁6사단 강성욱법사가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위문품 만드는일은 정성이 중요하다. 10여명의 보살들이 음료수와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



◁박미영 회장이 수계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향지모임 박미영 회장(왼쪽)과 총무 명공주보살이 수계장병들에게 위문품을 나눠주고 있다. 장병들의 위문품은 이틀간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

4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변에 위치한 향지모임 박미영 회장의 집이 샌드위치 공장으로 변했다. “우리 왜? 향지모임 종업원이죠” 자칭 종업원 10명은 전곡읍내 서점과 꽃집, 빵집의 사장님들. 장사가 잘되는 토요일이지만 생업을 포기하고 왔단다. 샌드위치공장의 작업은 분업으로 혁적 진행된다. 3명은 식빵을 보급하고, 4명은 야채와 과일 육류를 버무린 속을 넣고, 3명은 비닐로 포장, 2명의 관리자는 토요일 일요일 열리는 5사단과 28사단 군 법당들의 법회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느라 바쁘다.

워낙 숙련된 기술자(?)들인 종업원들은 약 3시간 만에 400인분의 샌드위치를 감쪽같이 만들었다. 물론 맛있는 속을 회장과 총무보살이 전날 저녁에 이미 만들어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살들은 자투리 부분을 골라낸 식빵을 튀겨 간단하게 점심으로 먹고, 허리하면 퍼보지 못한 채 또다시 공장을 가동한다.

이어진 일은 음료수와 과일을 나눠 담는 일. 작업의 포인트는 장병들이 비닐포장을 쉽게 열수 있도록 꼭꼭 묶어주는 것이다. 포장작업이 모두 끝나자 마지막으로 부대별 군 불자 인원수에 맞춰 박스에 담는다. 이날 작업된 물품은 12박스. 박스는 보살들의 정성까지 함해져 성인남성도 혼자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겁다.

위문품을 실은 5대의 자동차가 2시 30분 5사단 신병교육대 법회시간에 맞춰 부대로 향한다.

연병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갓 입대한 신병들이 줄지어 법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자 보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향지모임 보살들을 보는 신병들은 어머니를 보는 듯 행복해 진다.

음식 직접준비, 정성이 포교 노하우 신교대 수계자 3년전의 2배 “남편 생일잔치 군법당서 할 것”

법당에는 어느덧 300여명의 불자장병들이 모이고, 5사단 강성욱 법사가 수계식을 거행한다. 법사님의 수계법문이 끝나자 불자장병들은 ‘이 몸이 다하도록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 오게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우렁차게 서원한다. 연비를 마치고 수계식을 받아든 불자장병들에게서 ‘불법을 따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총무 명공주 보살(교서서점 운영)은 “장병들의 수계 장면을 보면 저절로 힘이 솟고 밤새 일한 피곤함도 눈 녹듯 사라져 버린다”고 말한다.

잠시 후 강성욱 법사가 향지모임 박미영 보살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은 생일은 따로 있지만 오늘은 부처님께 귀의하여 정신적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장병들은 큰 박

불자장병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힘 불끈 솟아요

연천 향지모임
5사단 봉사현장

부식비 월 1만원 아껴
군법당·독거노인 후원

향지모임 10년째...주부불자 70명 활동

수를 보낸다.

생일날 선물은 필수. 향지모임 보살들이 1박2일간 정성으로 마련한 위문품들이 햇병아리 불자장병들에게 전달된다. 불자장병들도 오랜만에 코 끝을 자극하는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의 향기에 군침을 삼킨다. 즐거워하는 장병들을 보면 보살들은 이 때만큼 행복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살들은 씬 없이 장병들 사이를 돌며 빵이나 음료수 과일등 부족해 하는 것은 알아서 손에 쥐어준다.

보살들의 끊임없는 정성으로 인해 5사단과 28사단 신병교육대 군 법당 수계자는 3년 전 150여명에 비해 두배로 늘었다. 신병수계가 많아보니 자연히 사단이나 연대법당 등에도 법회에 나오는 불자장병이 2배로 늘었다.

한 신병은 “향지모임 보살님들을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법회 때마다 찾아와 격려해주는 보살님들은 우리들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수계식이 끝나고 차에 오르기 전, 향지모임 회원들은 다음날 가야할 법회일정을 점검하기에 바쁘다. 가야할 5사단과 28사단 사단법당 연대법당이 정해지자 회원들과 물품이 나눠진다. 회비는 빠듯하고, 워낙 가야할 곳이 많아보니 연대법당에 후원이 어렵게 되자 명공주 총무는 남편생일잔치를 군 법당에서 하겠다고 나선다. 법당에 나오는 200여명의 장병들에게 대접공양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패스트푸드점에 주문해 치킨과 햄버거를 잔뜩 사오는 교회의 물량공세에 견줄 수는 없지만 법당의 위문품이 장병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이들의 면회를 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1박2일간 준비한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 장병들에게 있어 향지모임 회원들은 감로수를 주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임을 누가 의심할까?

글=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jgo@buddhapia.com

군 법당에서는 향지모임 회원들을 길상화(吉祥華) 보살들로 부른다. 보살들이 가는 곳이면 복되고 행복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이다.

인구라고 해봐도 2만명밖에 되지 않는 곳. 작은도시 연천군 전곡읍이곳에 10년 전부터 매일 부식비 1만원을 아껴 군법당 장병들의 어머니가 되기를 자청한 불자주부 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향지모임이 있다.

1993년 전남 장흥에서 불교학생회 지도교사였던 남편을 따라 연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박미영 회장. 그리고 10년간 물질정신적으로 든든한 힘이 됐던 토박이 총무 명공주보살.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대법당을 찾아가 법당을 청소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군사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살행을 하자’고 발원한 두보살을 주축으로 회원들이 모였다. 5년 전에는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자’는 의미의 향지모임 결성식도 가졌다. 향지모임은 어떤 사람이 군법당 후원에 뜻을 내면 동참하게 할 뿐 절대 회원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군법당 후원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준다. 그런 만큼 가입한 회원이 탈퇴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군부대 후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불교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됐다.

향지모임은 현재 5사단과 28사단 군 법당 건립, 부처님 개금불사는 물론 음식물을 후원한다. 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불교고아원 김장보시 등의 활동도 열심히 한다.

향지모임은 최근 ‘군 불자 108후원회’를 결성했다. 전국의 불자장병가족을 상대로 하는 108후원회는 후방의 장병가족과 군 포교에 뜻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준다. 후원자들은 후원가족으로 등록한 후 매달 초, 향, 차등의 법당 사용물품이나 보시금을 보내주면 된다. 문의 (031) 832-0719, 019-615-8114.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났으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